

「통일·북한 연구 신진학자 소통의 밤」 행사 개최

- 신진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‘통일연구 생태계 활성화 방향’ 모색 -

- 통일부는 5월 22일(목) 18:00,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「통일·북한 연구 신진학자 소통의 밤」 행사를 개최한다.
 - 이번 행사는 통일·북한 연구 신진학자 격려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, 정치, 경제, 사회문화 등 통일·북한 관련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진학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-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‘국제정세와 북한 사회의 변화’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며, 탈북민 강사 채윤서 씨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시간도 가진다.
 - 이어서 행사에 참석한 신진학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관심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, 통일·북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
- 통일부는 앞으로도 신진학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, 통일·북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통일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	책임자	과 장	허예원 (02-2100-5750)
		담당자	서기관	이용우 (02-2100-5751)